

임직자 선거 위한 공동의회 최종 결과 장로 2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8명 피택돼



안수집사 유효표-844, 무효표-18, 당선확정표-423

권사 유효표-855, 무효표-7, 당선확정표-428

피택자 : 장로-김양자, 한득현
안수집사-최성준, 김학원, 동현수

권사-송경혜, 최정운, 이봉순
따라서 2005년 임직자 선거 최종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피택인원 : 장로 2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8명
총피택자(가나다순)

2005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두 주간 실시되었다. 지난주일 1차 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주일 세례, 입교인 전교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투표인원 : 862명

피택인원 : 장로 2명,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

피택기준 : 장로 유효표-855, 무효표-7, 당선확정표-570

장로 - 김양자, 한득현

안수집사 - 공중서, 김학원, 동현수, 박중순, 서준규,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권사 - 고유자, 김운선, 백숙자, 송경혜, 은영희, 이봉순, 정영숙, 최정운

지난 수요일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선거 최종결과를 발표한 후 공동의회 폐회를 선언했다.

오늘 오후 4시 30CUP 예배 드려



7월로 네 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 30CUP WORSHIP SERVICE는 오늘 오후 4시 대 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된다. 참석하게 될 모든 지체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설교는 30CUP을 담당하는 김현령 목사가 담당하며, 예배중에는 주찬양선교단 창단 사역자인 류희현선생(송실대강사)이 송명회시인의 신앙고백인 '나'를 연주하게 된다. 7월에 드리게 되는 예배를 통해 30대 사역의 모토인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도제목이 전달될 것이다.

9일 동부17기 아버지학교 수료식 가져, 동부18기 아버지학교 8월 21일부터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돼

지난 9일 남포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동부17기 수료식이 있었다. 6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의 주제와 간증, 토론,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으로 그 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역할과 영적 권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나누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며, 이 사회, 국가가 살 수 있고 회복과 치유가 아버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일하는데 일은 아버지를 가정 밖으로 불러내고, 아버지의 부재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멀어져 가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며,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이미 밀려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아내에게만 맡겨진 가정은 역부족이고 위태로워지며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화된 역할이 필요하지만 많은 가정과 아버지들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바른 자리매김을 확인시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도와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 시키며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면에서 계속)

지난 수요성경공부 시간, 1학기 양육과정 수료식과 유아 세례식 함께 열려



지난 수요성경공부시간에는 3개월여간 계속되어

왔던 1학기 양육과정 수료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었다. 그러나 리더 훈련 받은 교육 일정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클래스를 수료한 성도 대표와 개근자 대표가 각각 수료증서와 개근상을 대표로 받았다.

그리고 제자의 삶 과정을 이수했던 어느 성도의 은혜로운 간증도 있었다. 문동학목사는 강의를 이끌며 수고한 강사들과 강의를 수강한 성도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정기적인 말씀연구와 영적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게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수요성경공부 이후, 지하 식당에 마련된 다과를 서로 나누며 그 동안 양육과정을 통해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뜻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료식과 함께 유아세례식도 있었다. 문동학목사는

왔던 1학기 양육과정 수료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었다. 그러나 리더 훈련

요10:10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보다 더 심각한것은 정신적인 혼란 즉, 영적 혼란이며 예수님 이외의 모든 달콤한 미끼는 도둑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기위해 이 땅에서 사는 모습 속에 풍성한 삶의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체험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유아세례를 받는 7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과 유아세례를 받는 가정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고백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유아세례받는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지난주일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드려

지난 주일(10일)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예배가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있는 서울유니온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정진경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가 이재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취임선포하고 기도했으며, 강원용 목사(경동교회 원로목사)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담임목사 취임사를 통해 이재철

목사는 그 동안 지켜왔던 신념과 사명을 버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시간도 없이, 두분의 주의 종을 통해 절대적이고 신비스런 권위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재철 목사는 사랑과 연합, 화해와 일치, 봉사와 헌신의 밑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자신을 양화진 곁으로 인도하셨고 양화진을 거의 매일 찾으며 교회를 위

해, 나라를 위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셨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섭리로 이 일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축사는 프린스 찰스 오텅보텐 목사(Prince Charles Oteng-Boateng, 서울유니온교회 담임)가 했고,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예배를 마쳤다. 100주년기념교회는 매주일 오후 3시에 주일예배를 드리며, 수요성경공부는 20일부터 저녁 8시에 가지게 될 예정이다.



1교구 교구수련회,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려 교구수련회 위한 기도모임 가져



1교구는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저녁 수요성경공부 후에 유치부실에서 교구수련회(2005 행복한 가족나들이)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졌다. 25명 정도 참여한 이 모임에서 문창복 장로의 기도 후에 정영환 목사의 인도로 예배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짝을 지어 개인기도제목들을 나눈 뒤,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

도했다. 많은 교구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위해, 마지막 날 밤에 열릴 “가족파티”를 위해, 가족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윤지언어린이와 손유택집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마지막시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었다. 기도모임 후에는 준비팀이 준비모임을 갖고,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1교구수련회는 다음주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행복한 가족나들이 -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7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개별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약도는 <http://www.klpm.net>에서 받을 수 있음) 참가문의는 김창안 안수집사(019-247-8174)나 정영환목사(011-9618-3124)에게 할 수 있다.



(1면에 이어서)

9일 동부17기 아버지학교 수료식 가져, 동부18기 아버지학교 8월 21일부터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돼

동부17기 아버지학교를 통해 실제로 아버지와 가족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자녀와 아내를 향한 축복 기도와 편지를 통해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

되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하심이 있었다. 이번 동부17기 아버지학교에는 150여명이 지원하여 140명이 수료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8명의 성도님이 수료했고, 6명의 성도님이 조장 및 관리부 스태프로 섬겼다. 이제 가정사역의 본격적인 시작과 아울러 8월 21일부터 우리교회에서 시작되는 동부18기 아버지

학교의 감동과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개설되는 아버지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주일 오후에 개설된다. 아버지학교를 개최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지원자로 그리고 스태프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이끄시는 치유와 회복, 감동과 변화, 화합과 일치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동부18기 아버지학교)

일시: 2005년 8월 21일(주일) ~ 9월 25일까지(추석 연휴 기간 제외),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장소: 정신 여중고 강당(주님의교회)
문의: 조선연(017-747-1233), 김인성(016-217-1147), 박중순(011-253-2621)

방과후학교 교사기도회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2시부터 2층 수련실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말고사기간인 7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간(7월 10일까지) 휴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책임자들과 교사들의 기도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었다.

지난 토요일에도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은 기도회와 수업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였다. 방과후학교는 다음 학기의 학생 충원과 청소년 리더십 스쿨을 위해 기도했다.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



안 방과후학교가 누렸던 주님의 임재와 교회로 인도하신 청소년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다음 학기에 만나게 될 새로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달란트 개발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세상의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기 위한 체제 갖추기를 희망하는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를 섬기는 책임자들과 교사들 개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곧 여름 방학을 맞게 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시간표와 수련회 계획을 세웠다.

방학 중 방과후학교는 목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될 것이다. 방학을 하면서 평일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방과후학교 책임자인 이종은 원사(011-9638-8719)에게 할 수 있다.

수련회소식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7월 23-24일 열려‘하나
님의 나라
와 문화’
라는 주제

속에서 열리는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맞아 유치부에서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로~’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열게 된다. 기간은 7월23~24일이며 장소는 주님의교회 유치부실이다. 두 번의 예배와 코스 워크, 물놀이, 영화보기, 미니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그 중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는 코스 워크가 중심적인 활동이다. 시작 예배를 마친 어린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심계명을 노래로 외워보고 여러고성 체험도 하게 된다. 또 구약시대의 제사예배에 배우고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구약의 한 부분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운 후 신나는 물놀이도 준비하고 있다. 구약시대를 복습하는 의미를 만화영화 '이집트 왕자'도 볼 예정이다. 신나는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에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며 좋은 날씨 속에서 아무 사고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썩트네(통합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지난 주에 가져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통합 유아부 "썩트네"가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먼저 여름성경학교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소주제로 코너학습을 가졌고, 오후에는 "가정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소주제로 코너 학습을 가졌다. 두 소주제 사이에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 오를 소재로 인형극을 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5개의 코너로 진행이 되었다. 음악잔치, 미술잔치, 춤잔치, 놀이잔치, 음식잔치로 구성되었다. 음악잔치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물건들을 타악기 삼아 찬양에 맞춰 두들기며 하나님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미술잔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 벽에 그림도 그리고 동물 모양 스탬프를 찍기도 했다. 춤 잔치는 율동을 통해 하나님 찬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해봤고, 놀이잔치는 하나님의 무지개 다리를 체험하기 위해 볼풀장에 있는 무지개 색의 공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놀이를 하였다. 음식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체험을 하기 위해 각종 과일들을 꼬치에 끼어서 옆에 친구에게 주는 놀이를 하였다.

"가정 속의 하나님 나라"는 엄마, 아빠, 언니, 할머니와 함께 가정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느끼기 위해 부모님께 감사 편지도 쓰고, 축하 파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카드 뒤집기 게임도 하고,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은 후, 담요를 타며 좁고 흔들리는 방주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참아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어려웠던 점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아이들은 각 코너학습을 하기 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암송하여 집에 돌아갈 때는 영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외웠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가 많이 내린 여름성경학교였으나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무사히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끝마쳤다.

영적전쟁 다룬 여호수아반, 특강으로 종강해
2학기에는 사도행전 본문으로
영적 전쟁 계속 다룰 예정

지난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되어왔던 여호수아반이 드디어 지난 주 목요일 시간을 마지막으로 1학기 종강을 했다.

강의를 인도했던 박의일 목사가 13번 강의하고, 마지막 시간은 특강으로 대미를 장식한 여호수아반은 클래스에 참석한 50여명 성도들의 열정적인 관심 속에서 한 학기동안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다. 이은영 집사가 반장으로 수고했고, 이종은 권사가 찬양인도로 수고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클래스를 물심양면으로 섬긴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중보기도가 있었다. 1학기에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영적전쟁의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교적 심층적으로 다룬 박의일 목사는 2학기에도 영적 전쟁의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이며 2학기에는 신약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강해하면서 영적 전쟁의 보다 실제적인 부분들을 클래스 안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2학기 양육 계획을 전했다. 1학기 마지막 시간이었던 지난 14일에는 외부 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고, 특강 이후에는 정성껏 준비한 소찬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은 한 학기동안 영적 전쟁 클래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대되는 마음으로 2학기 영적 전쟁 클래스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의 이야기

(제2이사야서 묵상)반 종강

제2이사야서는 이사야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본문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희망의 이야기이다. 이 성경연구반을 통해 이 인호 묵사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희망이 없음을 강조했다. "돌아오라"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전체의 주된 메시지이기도하다.

지난 한 학기동안, 왜 희망을 이야기하려는가? 아름다운 소식(40:1~11),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40:12~31),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41:1~29),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42:1~25), 너는 내 것이라(43:1~28), 너는 내 종이니라(44:1~28),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45:1~47:15), 고난의 풀무에서(48:1~22),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49:1~50:11),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51:1~23), 갇혀

다 갇히어다(52:1~12), 끌려가는 어린 양(52:13~53:12), 돈 없이 값없이 오라(54:1~55:13) 등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다. 학기 중에는 영락기도원에서 야외수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44:26)을 믿고 산으로 흩어져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희망의 이야기반"은 시간이 되어 단지만,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쓰여갈 것이다.

중국 북경 중등부 Vision Trip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계획중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각 교육부서의 손길이 분주하다. 활기찬 교육부서의 분위기에 걸맞게 다채롭고 유익한 행사들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그 행사들의 한 자리에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 Vision Trip을 시도하는 중등부가 있다.

중국 북경으로 떠나는 이번 Vision Trip의 규모는 150명이다. 처음 150명으로 인원이 계획되었을 때, 인원을 채우기 쉽지 않으리라는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많은 주위의 성원으로 단기간 등록이 마감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이상의 신청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신청한 인원들은 입급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Vision Trip은 북경 일대를 여행하는 3박 4일(8/15-18)의 일정으로 짜여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행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첫째, 새로운 문화, 환경 체험을 통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청소년으로서 자신을 성찰케 한다.

둘째, 현지 학생들과의 연합 집회와 만남을 통해 보다 폭넓은 관계와 신앙을 체험케 한다.

셋째, 선교 현장을 돌아보며 선교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현지에서는 이번 여행을 위해 '북경한인교회'가 발 벗고 나서 주었다. 현지 집회 장소 제공은 물론, 150여명 규모의 청소년부와 연합집회 주관, 그리고 학생

들의 여행 안내를 위한 대학생(현지 유학생) 도우미 등 뜻 깊은 여행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하는데에는 '북경한인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다.

이번 여행의 구성은 크게 오전 오후에 진행되는 전학 일정과 저녁에 진행되는 현지 유학 청소년들과의 연합 집회 및 소모임으로 나뉘어진다.

첫날 집회는 '북경한인교회' 김광성 목사, 둘째날 집회는 교육부 홍민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며 대련에서 보낼 마지막 저녁은 그룹별 모임과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되게 된다.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이번 Vision Trip이 관광과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홍민기 교육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여행을 그리스도의 제자 된 교사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타국 땅에서 비전을 품고 공부하며 신앙을 가꿔나가는 또래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도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기도 가운데 준비된 집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연합 집회 가운데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이미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5년 임직자 선거 최종결과

피택장로

(가나다순)



김양자 (4-5)
44년생/91년등록/68년수세
호스피스사역팀장/주방부



한득현 (3-5)
46년생/92년등록/79년수세
새가족사역팀/소년부장

피택집사

(가나다순)



공종서 (6-10)
56년생/95년등록/97년수세
어와나팀장/구역장



김학원 (2-14)
56년생/01년등록/71년수세
의료선교팀/호산나찬양대



동현수 (2-17)
56년생/95년등록/88년수세
청년부장/고등부교사



박중순 (3-11)
47년생/97년등록/95년수세
가정사역팀장/영아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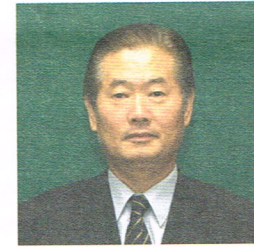
서준규 (6-5)
52년생/96년등록/94년수세
의료선교팀장/구역장



심동욱 (3-11)
52년생/92년등록/72년수세
가정사역팀/안내부



윤의탁 (5-26)
50년생/90년등록/80년수세
안내부/농어촌선교부



이원철 (4-17)
52년생/89년등록/95년수세
주방부/구역장



조영률 (5-8)
55년생/93년등록/70년수세
영상사역팀/예배부



최성준 (7-13)
50년생/94년등록/85년수세
경리부장/시온찬양대

피택권사

(가나다순)



고유자 (5-16)
53년생/89년등록/74년수세
소년선녀가장사역팀장/국내선교부장



김운선 (7-6)
47년생/99년등록/66년수세
시온찬양대/새가족사역팀



백숙자 (5-5)
52년생/92년등록/67년수세
구역장/상담부장



송경혜 (5-26)
52년생/90년등록/81년수세
중등부교사/호산나찬양대



은영희 (1-17)
50년생/95년등록/80년수세
살롬찬양대/장애인부



이봉순 (7-2)
52년생/90년등록/84년수세
새가족사역팀/봉사부



정영숙 (3-10)
51년생/96년등록/74년수세
전화상담사역팀장/살롬찬양대



최정운 (1-10)
53년생/94년등록/86년수세
썩트네부장/증보기도사역